

읽을 거리

Listening to People/Annett Lareau

‘발현적(Emergent)’속성은 무엇일까?

연구를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한다

아날로그 사진술에서는 필름을 현상하고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한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기계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한 후 하얀색 인화지에 그 이미지를 잠깐 노출시킨다. 그 다음 여러분은 그 인화지를 화학물질이 담긴 그릇에 푹 잠기게 한다. 그릇 속 인화지는 그거 검은색일 뿐이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사진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매우 서서히, 그리고 고르지 않게. 처음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는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아주 천천히 사진이 살아난다. 만약 이미지가 너무 흐릿하거나 또는 너무 진하다면, 여러분은 다시 기계로 돌아가 균형잡힌 사진을 만들기 위해 ‘버닝’(이미지를 더 많은 빛에 노출) 또는 ‘닷징’(사진의 특정 부분에 빛을 차단) 시간을 조절한다. 여러분은 다시 새로운 인화지를 현상액에 담고,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고, 만족할 만한 사진이 탄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정지액’에 인화지를 풍덩 담근다.

물론 사진을 인화하는 것과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에서 통찰이 떠오르게 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서서히 초점의 형태를 잡아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또한 여러분은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정과 수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처음 절반에서 과정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은 흔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여러분의 연구를 어떻게 자신이 속한 학문 분과 내의 지적 논쟁들 속에 위치시켜야 할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무엇이 새롭고 흥미로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어쩔 줄 모르게 된 나머지, 여러분의 연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확신할 수도 있다. 이 모든 불확실성과 걱정은 정상적(normal)이다.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연구대상자들과 어울릴 때, 다양한 새로운 질문들이 떠오르게 된다. 이때 여러분은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여러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할까?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야 할까? 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진짜 알아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사회적 삶(social life)은 복잡다단해서, 하나의 연구 내에서도 다양한 지적 여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자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나가면서 생각(thinking as you go)”해야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연구를 해나가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활용하여 연구를 설계하고, 시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글을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 책이 친절한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는 여정은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 많은 중요한 연구들이 연구실 컴퓨터 앞에서 수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깥 세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통해 또는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푹 빠져볼 수 있기에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 탐험하는 일에 대해 흥분한다. 질적 연구를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익숙한 삶과는 전혀 다른 강렬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은 연구자와 피연구자 간 권력과 지위의 불균형과 같이 잠재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는 연구 수행 방법에 대해, 그리고 연구가 연구대상자와 그들의 공동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매우 주의깊고 세심하게 고민해야 한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고된 과정이다. 그러나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의 이해에 깊이를 더해줄 뿐 아니라, 연구자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만한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만약 여러분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나는 감히 질적연구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질적 연구를 통해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사람, 집단, 제도, 그리고 사회적 과정에 대해 발견하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질문거리

- 위의 글에서 인상적이거나 공감이 되는 내용에 줄을 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질적 연구자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나가면서 생각(thinking as you go)”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질적연구에는 왜 그런 태도가 필요할까요?